



[정규과정] 히트하는 뮤지컬 기획부터 홍보까지

주제 : 뮤지컬 예산 설계 핵심 포인트

뮤지컬 제작에 필요한 자금마련 및 제작, 공연장, 일정, 수입 등
뮤지컬 예산설계의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튜터 이두호

1. 자금마련

공연을 제작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다. 자금마련 방법은 자기자본, 공동제작파트너 투자자금, 공공기관 지원금, 티켓판매 대행사의 선급금 및 투자자금,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유치 등이 있다. 기업협찬금의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수입이지만, 대부분의 기획자들은 이를 공연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티켓판매 선급금은 티켓판매대행사로부터 예상 티켓 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형식이다. 이 밖에 개인의 정기 및 비정기 후원이 있으며, 정부에서 문화콘텐츠 개발 활성화 및 민간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모태펀드와 매칭펀드 등을 운용하고 있다.



✓ 지원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통상부 등 행정부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등 지자체 산하기관
-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등 축제/행사 주관처

✓ 투자기관

-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산하기관 보증사를 통한 투자자금
- 이수창업투자, 일신창업투자 등 창업투자 금융기관의 투자자금
- 자산운용사 및 은행권의 펀드 자금 등

2. 공동제작

극단, 소규모기획 제작사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는
자기자본만을 투입해 공연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대규모 기획제작사도 자기자본만으로 공연 제작을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공연 성공이 확실하게 예측될지라도
자기자본만으로 공연을 제작하기보다는
제작비 조달 부담도 줄이고 위험 분산 및 파트너십 구축차원에서
공동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작비 분담과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최초로 작품의 공동제작을 발의한 기획사 주도로
공연 결과의 손익 지분율과 연동한 제작비 분담 방식으로
공동 제작 파트너십이 이뤄진다.
기획제작사, 방송사, 공연장, 대형엔터테인먼트사, 티켓판매대행사 등이
파트너 군이라 할 수 있다.

3. 공연장

전체 예산 중 공연장 대관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대관료는 대관이 확정되는 시점에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잔금도 공연이 개막하기 직전에 완납해야 한다.

공연장 운영규칙에 따라 여지가 있기도 하지만,

중대형 이상의 공연장과 연습장의 경우는 대부분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장르마다 대관료가 다르다.

중대형 공연장에서는 세트반입과 리허설 등 준비기간과 본 공연기간, 철수기간,

야근 작업시간 등에 따라 대관료가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대관료 외에 공연장에 구비된 조명, 음향 등 무대장비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 때에는 별도의 사용료가 추가된다.

- 무대 및 객석의 규모(대 1,000석 이상, 중 300~1,000석 미만, 소 300석 미만)



4. 공연일정

공연 일정은 주수입원인 티켓매출(전체 판매 가능한 좌석수)을 산출하는 근간이자, 스태프와 배우의 인건비, 시스템, 대관료 등 모든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공연 일정을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많은 내외부의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많은 스태프와 출연자가 참여하는 만큼 모두가 모여서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기간이어야 할 뿐 아니라, 실물경기나 소비동향, 공연시장의 추이, 경쟁사 작품, 선거나 전염병 등 국가적 사건과 행사, 명절 등 연휴, 기후 등 일정에 따라 흥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많이 있다.

5. 출연자

작가, 연출, 작곡, 안무 등 메인 스태프는 주급, 월급 방식보다는 2~3차례(계약착수금/중도금/잔금)에 나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머지 스태프의 경우는 스태프의 참여 시점과 역할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둔다. 출연자는 작품의 규모에 따라 소형(10명 이하), 중형(11~20명), 대형(20~30명), 초대형(30명 이상) 정도로 구성된다.

출연 배우의 경우 주급, 월급, 3분할급 등이 대부분이며,

최근 들어 고액 개런티의 출연자일 경우,

선급 및 일시급, 러닝 개런티 방식도 채택되고 있다.

최근에는 강한 팬덤을 가진 아이돌 출신 스타 배우를 캐스팅 하는 경우가 많은데, 흥행을 담보하지만 제작비에 큰 부담을 주는 고가의 개런티가 필요하다.



6. 수입원

공연수입은 현금 성격의 측면을 기준으로 주 수입원인 티켓판매수입을 비롯해 기념품 판매수입, 광고수입, 협찬수입, 추가공연(앵콜 및 지방공연) 수입과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현금화시킬수 없는 협찬 또는 후원 성격의 물품 유입은 제작비의 일정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 ✓ **부대수입** : 티켓판매 수익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 좁게는 ① 프로그램 및 기념품 판매수입, 협찬수입, 광고수입 넓게는 ② 공연권/방영권/저작권재산권 판매수입, 추가공연, 지원금수입 등 다양하다.
- ✓ **지원금** :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모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공연관련 예술제 및 축제의 참가작 자격을 얻거나, 국제 교류차원의 해외 공연작으로 선정되는 등의 절차를 밟아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제공받아 공연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등 행정부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등 지자체 산하기관
-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등 축제/행사 주관처